

구미, 기후변화 교육관 건설

경북 구미에 기후변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관이 들어선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3월12일 남통동 경북환경연수원에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해당시설은 전국에 권역별로 설립되는 7개 기후변화 홍보관 가운데 하나이다.

구미시는 2014년 2월까지 국비 43억원을 포함해 모두 110억원을 들여 환경연수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교육관을 건설할 예정이다.

교육관은 기후변화관, 탄소제로관, 제로실천관, 동력에너지 놀이터, 태양광 피아노, 폐자원 활용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구미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교육관의 에너지 소비량을 충당하고, 재활용·친환경 자재로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이다.

구미시 배재영 녹색정책담당관은 “교육관이 <탄소 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13/03/13>